



한표 행렬

6·2지방선거 투표일인 2일 오전 화순군 화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제11투표소에서 화순읍 교리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시명주기자 mjna@

與 독주 견제... 밑바닥 민심의 분노

■ 야당 승리 요인과 의미

세종시 수정 등 지역 이슈 큰 반발 '천안함' 역풍에 '노풍'으로 표 결집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예상 밖으로 선전한 것은 거대 여당에 대한 민심의 견제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새벽까지 초박빙 판세를 나타내며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지방선거 결과의 주요 요인을 조망해 본다.

◇강력한 견제 심리 작용=이번 지방선거가 예상외로 민주당 등 야당의 극적인 승리로 결론지어진 것은 거대 여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인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풍(北風)을 타고 지방 권력마저 독점할 양상을 보이자, 민심의 견제 심리가

강력하게 발동했다는 것이다. 여당의 압승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의 견제 심리를 더욱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투표율로 입증된다. 당초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40%대 후반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난 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54.5%를 기록했다. 민심이 투표 참여를 통해 거대 여권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숨은 표는 야당을 선택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숨은 표가 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점이다. 20~40대의 젊은 세대의 표심이 막판



에 결집, 야당 후보를 선택하면서 예상외의 결과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도권 선거 결과는 이 같은 현상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당초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15%대,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는 10%대,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5%대의 차이로 여당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는 서울시장 선거전 초박빙, 경기지사 선거전 박빙, 인천

시장 선거전은 역전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상당 부분의 민심이 거대 여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북풍에 반발한 역풍=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풍의 확산은 민심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견제 심리를 더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풍은 일단 보수층의 결집 효과를 가져왔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등 진보층의 위기감과 견제 심리를 자극, 더 강한 결집을 촉진함으로써 여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200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총선을 사흘 남기고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발표, '신(新) 북풍' 비난에 휩싸이면서 예상 밖의 참패를 했던 것과 유사하다.

◇지역 이슈와 정서=지역의 이슈와 독특한 정서도 야당의 승리를 이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는 여당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는 서울시장 선거전 초박빙, 경기지사 선거전 박빙, 인천

중권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반감이 컸으며, 강원에서는 기존의 지역 소외론에다 북풍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경남은 한나라당의 공천 잡음과 이 곳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열기가 당락을 좌우했다는 분석이다.

◇노풍과 후보 단일화=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맞아 주목했던 노풍은 겉으로는 그리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풍은 선거 막판 숨어있는 야당표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태풍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물리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야권단일화도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였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여당 단일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와 1대1 맞대결 구도를 만들며 선거 막판 사표심리를 방지하고 지지층 결집의 시너지 효과를 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달 28일 남구 보선 자천타천 10명 거론

중앙당 입장·강운태 의중 등 변수

6·2 지방선거가 마감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오는 7월 28일 실시되는 남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집중되고 있다.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사가 벌써부터 10여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양형일, 정동태, 전갑길, 지병문 전 국회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장병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고재우 전 시장, 임내현 전 고검장과 이윤정 지역위원장, 정기남 한국사회조사연구원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강운태 당선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유동국 전 전남매일 사장이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언론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주류 세력의 입장을 남구 보궐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고 있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으로 당선된 강운태 전 의원의 의중도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강 시장 당선자가 남구의 정치 패권을 장악할 한데다 최영호 남구구청장 당선자의 승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강 시장과 최 구청장의 지원 없이 남구 보궐선거 참여가 상당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남구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강 후보와의 관계 강화에 상당한 신경을 쏟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남구 민심의 의중을 남구 보궐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호소리를 들었던 만큼 중앙당이 무리한 전략공천에 나설 경우, 상당한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물밑 경쟁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남구 보궐선거는 중앙당과 강 시장 당선자의 입장 조율도 중요한 변수지만 무엇보다도 남구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는 인사를 공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교육행정 지각변동 온다

서울·광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 6명 입성 서열화·특권교육 등 MB교육정책 반대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광주의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 전남의 장만제 전 순천대 총장 등 진보성향 후보들이 시·도 '교육사랑관'으로 대거 입성함에 따라 교육현장은 물론 교육당국의 정책 기조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인 장휘국(광주)·장만제(전남)·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 등 6명이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나머지는 10곳은 보수 또는 중도다.

이들 진보성향 교육감의 공통점은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경제력 상위 50%에 드는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자율형 사립고 확대방안을 비롯해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성적 학

교별 공개 등 주요 정책마다 교육당국과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공통적인 정책 기조는 대부분 평등성 교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수 정책에서 수월성 교육에도 신경을 쓰는 교육당국과는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내건 전면적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 무상 교육복지 등도 실현 가능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들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워낙 커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교육 당국은 전교조 간부 출신 후보들이 있따라 교육감에 당선된 점에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 장휘국 후보와 강원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후보가 현 교육감 등을 누르고 당선되자 교육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MB 특권 교육을 심판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등장은 다른 진보성향 인사들의 교육감 당선과는 또 다른 차원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는 최근 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을 해임·파면키로 한 징계 방침에 반발해 교육당국과 사실상 전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는 이날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교사 징계는 법원의 판결때까지 유보하면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나는 뽀로로 놀이동산

2010. 6. 19(토) - 8. 22(일) **공전포화 611-2252**

오전 10시~오후 7시(8월 21일 휴무) 입장료 1천원

장사동전원빌딩센터 1관시당

공전포화 611-2252

이용안내: 티켓마루, 인터파크, 티켓링크

매일 KCTV 11:30 ~ 12:00 방송